

<참 고 문 헌>

- 양 동휘(1986) “한국어의 대응사론”, 「국어학」 15.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Kuno, S. (1987) *Functional Syntax*,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國語 話法論

全 英 雨 著

新菊版 419面. 1987. 5. 集文堂

車 培 根

(서울大 教授, 新聞學)

“儀禮的인 말은 최대한 줄이고 內容 위주의 評을 하여 달라”는 原稿請託者의 당부가 있었지만, 우선 이 책의 著者인 全英雨 교수의 勞苦에 대한 致賀의 말을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것은 話法論에서 이야기하듯이, “남의 말을 批評할 때에는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 批評을 한 다음 다시 칭찬으로 말을 매듭지어라”는 소위 ‘샌드위치’식 論法에 따르자는 것도 아니고, 또한 儀禮的으로 한 마디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著者 本人이 이 책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全英雨 교수는 과거 24년간 오로지 ‘스피치(speech)’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 그간에 「스피치概論」(1964) 「話法原理」(1971), 「話法論」(1973), 「표준 한국어 발음사전」(1984), 「國語話法」(1985) 등 여러 권의 著書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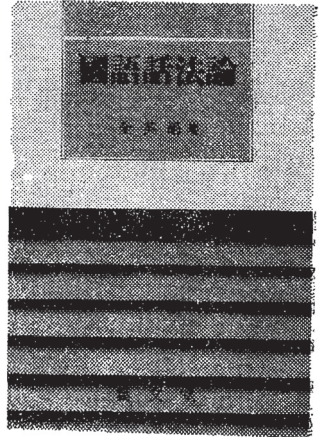
「國語話法論」이란 力著를 내놓았는데, 이 책을 보면,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이 책이 그의 과거의 다른 著書들의 總和版이자 結晶版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러면서도 과거의 그의 著書들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話法論의 理論들과 그 體系를 소개, 話法論이 오랜 學問的 傳統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學問分野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에 관한 西洋의 理論이나 學問的 知識을 단순히 그대로 소개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나라에 土着化시켜 그 나름대로의 「國語話法論」의 學問的 體系를 세워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 책의 內容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序章에서는 그 隣接學問 분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 1장에서는 그 研究 필요성의 제시를 통해서, 話法論의 學問的 位相과 本質 및 研究·教育의 目的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너무 뒤로 처진 감이 없지는 않으나, 제 12장 「話法の 研究」에서는 話法論의 學史 소개를 통하여 그 學問的 傳統을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 話法の 原理(제 2장), 스피치의 機能(제 9장), 스피치의 類型(제 10장), 스피치의 計劃(제 7장), 스피치의 實演(제 8장), 스피치의 評價(제 9장) 등에서는 話法の 原理와 實際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著者が 오랜 研究와 또한 아나운서로서의 實務經驗을 통해서 실제로 檢證해 본 결과로서 얻어진 참다운 산 知識들이라고 보겠다.

때문에, 이 책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아! 그렇구나”하는 話法の 原理들을 무수히 접하게 되며, 풍부한 實例에 놀라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話法論의 實用教科書로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좋은 책이다.



하지만, 육십 갈아서는, 이 책이 스피치學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學問分野를 총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概論書이니만큼, 우선 “스피치學 또는 話法論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나서, 話法の 實際를 다루어 나갔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스피치學을 말하기에 대한 단순한 技能論쯤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著者は 이 책의 序章에서, 그 隣接學問 분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話法論의 學問的 位相을 밝혀주고 있으며, 또한 제12장에서 話法論의 學史를 古代 그리스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자세히 소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發展되고 있느냐에 대한 動向의 소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요사이 話法論에 관한 外國에서의 學問的 動向을 보면, 그것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speech communication)이니 또는 ‘對人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니 해서, 커뮤니케이션理論의 立場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한 그 理論體系를 定立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概論書들도 대체로 커뮤니케이션 過程에 따라서 ① 커뮤니케이터(Communicater, 또는 Speaker), ② 메시지(Message), ③ 채널(Channel), ④ 受容者(Receiver), ⑤ 效果(Effects) 등의 要素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體系化하고 있다.

그런데 全英雨교수의 이 「國語話法論」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概念에 대하여 간략하게 5~6 페이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을 뿐, 話法論을 커뮤니케이션理論의 立場에서 파악하고 있는 外國의 새로운 學問的 傾向에 관한 소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그것을 반드시 소개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울러 소개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理論의 立場에서 쓰여졌더라면, 이 분야에 관한 마땅한 教材가 없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新聞放送學科들에서도 “對人 커뮤니케이션論” 교재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總論 부분에 속하

는 章들과 各論 部分에 속하는 그것들이, 또는 理論 部分에 속하는 章들과 實際에 관한 그것들이 다소 뒤섞여져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이것은 著者 나름대로 어떤 理由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컨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過程을 그 計劃段階에서 評價段階까지 연속적으로 한 단계씩 차례로 설명해 나가지 않고 評價段階는 꼭 빼어 놓음으로써 體裁 上에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남이 써 놓은 책을 놓고서는 이렇듯 저렇듯 評價를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자신이 책을 써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作業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 作業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全英雨 교수의 勞苦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특히 全교수는 이 땅에서의 스피치學의 개척과 발전을 위해서 외롭(?)게 외길을 걸어가는 분이다. 그가 그토록 애써서 소개하고 발전시키려는 스피치學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學問인가는 이 책을 읽어 보면 충분히 理解가 될 줄 안다. *

우리말 분류 사전

부록 : 역순 사전

남 영 신 엮음

4×6배판 865면. 1987. 10. 한강문화사

서 정 수

(한양대 교수, 국어학)

<우리말 분류 사전>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여느 사전 가운데 하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글쎄이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처음 받아들였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전을 요